700일 맞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장기플랜이 생명



2013. 8 / 서울시 · 조계종 MOU


2014. 11 / 총본산 성역화 사업 출범


2014. 11 / 추진위 현판식


2016. 3 /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


2016. 5 / 초파일 모연법회


2016. 6 / 모연릴레이 캠페인

지난 2014년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3000여 대중이 모여 한마음으로 총본산 성역화 원만회향을 서원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대 불사로 꼽히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가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날 성역화불사 추진위 출범 이후 조계종은 불사를 본격화했다. 올 10월 13일 총본산 성역화불사추진위가 출범 700일을 맞는다.

최근 부지 매입 · 기부 이어져
조계종 매입 후 국가 기부체납
법난 피해보상 원칙 세워야

속속 매입되는 조계사 일대 부지

성역화불사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성역화불사는 부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삼오모텔 매입, 2015년 상아불교사 일대 매입에 이어 올해 9월 1일에는 대웅전 맞은편 을유문화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계사 측은 현재 임차인들이 이주하는 2017년 4월 경부터 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종무소를 비롯한 사무공간 활용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성역화불사 추진은 부지 매입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사업이 2018년까지 진행되며 2025년까지 관련 정비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족한 매입자금, 기부는 늘어

문제는 매입 대금 지급이다. 오랜 숙원이던 을유문화사의 경우 총 137억 5000만원에 계약 했지만 계약금은 30억원으로 100억원에 대한 잔금지급이 남아 있다. 이 밖에도 매입 부지에 대한 대금 지급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역화 불사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배정은 수시배정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그때 배정된다. 다행인 점은 최근 성역화 불사에 기금 답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불사추진위가 6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50일간 진행한 '모연릴레이 캠페인' 후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가 계속된다. 이를 통해 총 6866만원의 기금이 모연 됐으며 불사추진위 측은 모연릴레이 캠페인으로 홍보가 진척된 것으로 자평한다.

박성주 추진위 모연팀장은 "사찰의 동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익명의 불자가 1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몇천원부터 10만원까지의 소액기부자, 또는 개인기부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성역화 불사의 취지에 공감한 분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재 성역화불사 모연기금은 10월 4일 기준 49억 9536만원이 모인 상태다.

민간자본보조 방식 한계 넘어야

하지만 이러한 성역화 불사도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그 근본에는 성역화불사가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부와 서울시, 조계종이 함께 추진하는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의 중심에 있다.

여기서 법난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이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진행되는 것이 명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조계종이 땅을 매입해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에 향후 법난 기념관 운영을 비롯해 종단 운영에 정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단계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 명분을 쌓고, 근본적으로 피해보상에 의한 사업진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혜총 스님은 "성역화 불사는 장기적으로 한국불교 총본산을 새롭게 하는 대작불사"라며 "회향하는 날까지 스님과 신도들, 그리고 전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며 함께 동참해 뜻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추진위는 10월 31일 제2차 전국사찰 동시 초하루 법회에서 추가 모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월에는 성역화불사에 동참한 이들에게 스님들의 애장품을 선물로 전달하는 감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종단에 피해 끼친 점, 깊이 자책"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10월 5일 공개 참회

태고종 125차 종회서 입장표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중



종단운영을 둘러싼 폭력사태로 검찰에 구속됐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위 사진>이 종도들 앞에서 공개 참회했다.

도산 스님은 10월 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태고종 제125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점에 깊은 자책과 참회를 드린다"며 "많은 생각 끝에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종단 주요 소임자들과 논의해 거취를 정하고자 종단에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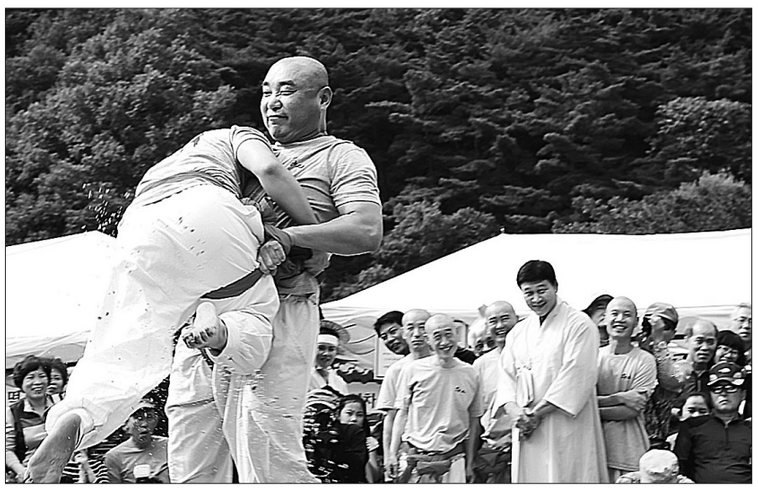
현재 도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실형 선고에 따른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날 도산 스님은 "소송의 부당함이 법원 결정으로 판가름 나면 책임을 묻고, 인용된다면 저 역시 그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참회에도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을 둔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선관위원장 혜일 스님 측이 '이미 도산 스님은 종무원법상 징역형 확정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종회 전 배포했다. 또 종회 개회 직후 총무원장 면직을 주장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이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제125차 임시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54명 중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헌 · 종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교육기금 환수 건이 결의됐다. **김주일 기자**



으랏찻차, 힘내라 불교! 산중전통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동화사 승시축제가 가을 팔공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월 1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화사 경내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마당이 펼쳐졌다. 승려 씨름대회에서 참가한 스님이 다른 참가 스님을 번쩍 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종회의원 연수… 김영란법 대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이 사회현안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한 연수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10월 4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불기 2560년도 중앙종회의원 연수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수석부의장 자현 스님,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등 스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성문 스님은 입재식에서 "연수를 통해 종단과 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회의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과 현대사회와 건축에 대한 강의 등으로 토론을 벌였다. **윤호섭 기자**

"秋夜, 국화향 가득한 조계사로 오세요"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11일 개막, 12일 야경템플스테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조계사가 국화향기로 물든다. 가을밤 사찰에서 국화향기에 젖어드는건 어떨까. 제6회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이 10월 11일 개막에 이어 한 달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국화향기 나눔전은 조계사와 인사동 일대의 야경을 만끽하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야경(夜景) 템플스테이'가 처음으로 열린다.

매주 수요일 오후7시 총 8회에 걸쳐 범종루 앞 데크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야경템플스테이에서는 전통차 시음과 함께하는 다식 만들기, 지화 만들기, 마음챙김 명상과 소원지 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또 서울시청 시민청, 북인사마당,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에 비치된 쿠폰을 제출하면 참가비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국화 나눔전에는 다양한 국화조형물이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이번 나눔전에는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허영만 화백의 '날아라 슈퍼보드' 등장인물인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국화 토피어리, 잉어국화, 국화가 만발한 조계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수요 작은 음악회 달빛'도 국화 나눔전을 풍성하게 만든다. 전자 바이올린 연주, 재즈, 아쟁 해금 연주, 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11월 6일에는 어린이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도 진행된다. 대회 주제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 부처님과 나, 우리 가족이 함께 꿈꾸는 미래로 총무원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이날 행사 후 마술쇼와 비보이 공연도 진행된다.

이밖에 조상천도와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중양절 국화 수륙재(10월 9일),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10월 11일), 제7회 종로구와 함께하는 채용박람회 일구데이(10월 12일),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으로 행복한 동행 바자회(10월 28~3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인사동에서 가래떡을 나눠주는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11월 11일) 등도 마련된다. (02)768-86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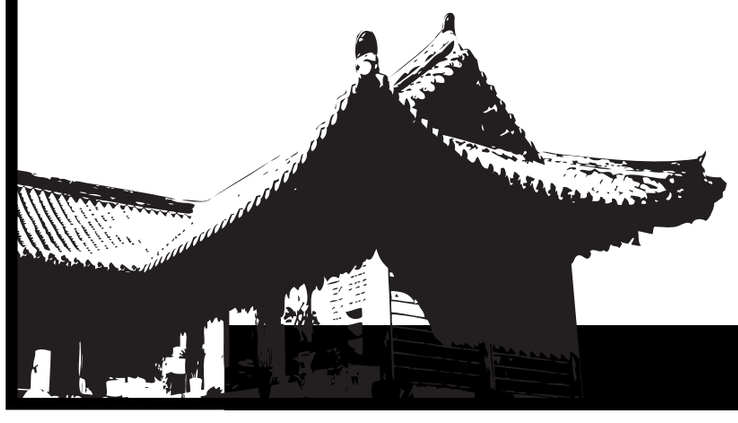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